



남원소방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10일 관내 휴양시설 및 관광지에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하기 좋은 날'은 화재 취약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관계자의 주도적 자율안전 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사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이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추진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의용소방대원 30명, 소방공무원 15명이 참여. 뱀사골 계곡, 광한루원 등 주요 휴양·관광지에서 △점포 상인 화재예방 자율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교육 △기초소방시설 사용방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스포링클러 미설치 노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우리집 점검의 날'을 병행 운영 폭염기간 냉방기 안전 사용을 홍보했다.

한편 백성기 소방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화재예방 안전의식 함양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증진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임실군 자율방재단, 폭염 대응 홍보활동 전개

임실군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폭염 상황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날 임실군 자율방재단 15명(단장 차수우)은 관내 취약계층을 찾아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삼계탕, 김치, 얼음물 및 부채와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담은 전단지 등을 전하며, 폭염 행동 요령을 홍보했다.

이어 청문면과 강진면 등의 무더위쉼터를 방문하여 무더위쉼터 개방 여부, 에어컨 작동 여부 등 쉼터 운영 실태와 불편 사항을 파악하는 등 관내 재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여름철 재해예방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차수우 자율방재단장은 "무더운 여름이 연일 계속되는 요즘 더욱 철저한 건강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 자율방재단은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응급 복구를 위해 만들어진 민간단체이며 2022년 8월 현재 117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야호시장 수익금, 어려운 이웃 위해 기부

나눔드림협동조합 · 야호시장추진단, 수익금 일부 50만원 기탁

나눔과 소용의 생활문화마당이자 전주시민장터인 야호시장의 판매 수익금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 (이사장 이병관)은 10일 나눔드림협동조합과 야호시장추진단에서 '2022년 제3회 야호장터'의 수익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후원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노송광장에서 나눔드림협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2022년 제3회 야호장터에는 총 12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한여름 물소풍과 재미난 놀이장'을 주제로 한 물놀이 행사로 꾸며졌다.

특히 참여 팀들은 이 행사에서 직접 만든 수공예품, 디지털 등을 판매하고 거둬들인 장터 수익금 일부를 전주시 복지재단에 기부함으로써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의미를 더했다.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 이사장은 "야호장터에서 구매, 체험 등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신 전주시민들, 판매 수익을 기부해 주신 참여팀들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장수군, 내수면 생태계 보전 위한 다슬기 방류

장수군은 지난 9일 장수·장계·천천면 일대 하천에 건강 한 내수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수군 내수면어업계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다슬기 150만패를 방류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 공무원, 장수군 내수면어업계 및 지역 주민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방류한 다슬기는 금강 수계의 장수군 토종 다슬기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크기 0.7cm 이상의 치패로 다슬기는 하천의 유기물과 이끼류, 동물의 사체 등을 섭취하기 때문에 오염된 하천을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해 내수면 생태계 유지에 유용한 수산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 무분별한 불법포획 등으로 다슬기를 비롯한 수산자원이 급감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엔 방류하는 다슬기는 자원의 보호증진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의거해 각고 1.5cm이하는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는 포획금지 기간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종진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토산 수산자원을 방류해 하천 생태계를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청정장수 이미지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청파이앤티, 전북교육청에 방역물품 기증

(주)청파이앤티(대표이사 김진선)는 10일 전북교육청에 손소독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진선 대표는 이날 도교육청을 찾아 서거석 교육감에게서 5,000만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전달하며,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손소독제 기부에는 전북도의회 김명지 교육위원장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이날 기증받은 손소독제는 도내 초등학교 422곳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명지 교육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선 대표는 "코로나19로 기업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곳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인 아낀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북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방역물품을 기증해 주 감사하다"며 "전북교육청은 2학기에 돌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학교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청파이앤티는 전기전자 계속제 및 교육장비 전문기업으로, 국내 디지털 다기능 계측기 분야 1등 기업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신규농업인 농기계 안전교육 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2기 교육생 34명 중 28명을 대상으로 1회차 교육인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농업인들에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였으며, 교육에서는 농작업 활동에 유익한 안전교육과 농작업별 농업기계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2022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2기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원예작물분야 등 6개 분야의 재배기술교육과 현직 농가의 사례발표, 문화 탐방 및 체험 분야의 교육을 주 금요일마다 총 10회(1일 4시간)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기탁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고 나섰다.

서한국 전북은행장은 10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선봉기 쿨매트, 쿨스카프로 구성된 시원키트 100상자를 기탁했다.

시는 이날 기탁된 시원키트를 전주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우선 전달했다.

전북은행은 폭염 취약계층에 생필품 지원 이외에도 오는 8월 말까지 전 영업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등 혹서기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은행은 이날 31일까지 각 영업점 내 쉼터를 마련하고, 은행 거래를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도 개방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운영질화에 취약한 독거노인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냉방기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후원 연계를 통해 40여 대의 선봉기를 전달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